

목장교회 나눔지

2022. 12. 18. 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5분/온라인모임 3분)

*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나누어 보세요.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2. 성탄 카드를 딱 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내고 싶은가?
3. 평평 내리는 눈과 관련한 특별한 추억이 있는가?

장 장맛비 같은 찬양(15분/온라인모임 5분)

복	선하신 목자 (지 174장)	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새찬 569장)
음	빛나는 왕의 왕 (지 459장)	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새찬 570장)
성	아버지 당신의 마음 (지 200장)	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찬 109장)
가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지 422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새찬 86장)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5분/온라인모임 30~40분)

지난 한 주간 지구촌공동체성경읽기, QT(매일성경, 새벽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Just Like Jesus	31.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21절
-----------------	---------------	-----------------

서론) Image making이란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혹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 괴리가 커지는데 있다. 그 원천적 이유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인간이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의 이미지 메이킹을 향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진짜 이미지를 메이킹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진정한 이미지, 의미는 무엇인가?

1.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목자 - 충성 (12-13절)

1)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12절).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왜 이렇게 격하게 설명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반대 의미를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고 말씀하신다.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샅꾼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보신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2) 선한 목자에게는 이 충성심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척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샅꾼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충성심으로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샅꾼의 차이점은 위기 때 확연히 구분된다. 양떼가 위험에 처할 때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이미지이다.

2. 자신의 양을 잘 아는 목자 - 친밀 (14-15절)

1)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뿐 아니라, 전인격 존재로서 안다는 것이다. 목자가 양떼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히 돌볼 수가 없다. 양도 역시 목자를 알아야 한다. 목자도 양을 사랑해야 하지만, 양 역시 목자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목자가 제공하는 풍성한 풀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서로가 갖는 친밀감을 말한다. 친밀감이 있어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난다.

2)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말씀 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강조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잘 알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이다.

설교내용

3.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찾아나서는 목자 - 긍휼 (16절)

1)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예수님은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다. 선한 목자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푸른 초장에 나갔다가 세상에 현혹되어 돌아오지 못한 양들을 찾아나서는 것, 그리고 목자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양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전혀 모르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 찾아나서는 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이다.

2) 이것은 완전히 파격적인 선언이다. 스스로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 여겼던 이스라엘의 교만함은 오히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울타리 밖의 이방인들도 찾아 나서시겠다는 것이다. 선한 목자의 마음은 울타리 밖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울타리 안의 양떼들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4.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순종의 능력을 보여주는 목자 - 순종 (17-18절)

1)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가 너무도 막강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양떼들은 맹수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어둠의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스스로 막아 내기란 불가능 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것이다(18절).

2)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은 자발적 헌신이었다. 사탄에게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 해서 스스로 버리신 것이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으실 권세도 있으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자발적 순종 이셨다. **기억하라. 선한 목자의 자세는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자발적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함께 다시 연기 위함임을 되새기라.

3)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하고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습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선한 목자를 그려야 한다.

결론)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목자를 배신하고 떠난 양떼들을 디베랴 바닷가로 부르신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다짐할 것을 질문 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다음 사명은 바로 [네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돌보고 섬길 양떼들을 맡겨 주신 것이다. 우리 삶에 빛대어본다면, **인생이 세상 경쟁에서 성공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어야 위대해 지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 지구촌교회 최고의 직분은 목자이다. 돌보 GO! 나누 GO! 전하 GO! 이것이 우리의 DNA이다. 더불어 우리는 그 직분을 대함에 있어 “sheep dog,” “**참된 목자를 도와 양을 치는 충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 되고 작은 목자라 불러 주시고, 인정해주실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우리 삶 가운데 돌보고,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한다.

점검질문

점검질문 *설교의 주요 내용 점검

1.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네 가지 키워드는?
2. 선한 목자와 샅꾼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
3.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은 순종의 열매는?
4. 요 21장에서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